



말씀

“일음장 끼기”

지난주일 복음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타볼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 곧 십자가를 향한 여행 중이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두루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셨던 지역은 갈릴래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은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래아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솔로몬 임금의 죽은 뒤,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된 곳입니다. 더욱이 아시리아 침공을 당한 뒤에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됨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종교의 이단자라고 불리며 멸시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개’(犬)처럼 혹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마태 15,26; 마르 7,27-28 참조).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거리감이 아니라 거부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9절)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멀리 거리를 두려고 했을 뿐,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기꺼이 수용하

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던 다 용서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마태 12,31 참조). 예수님과와의 만남, 대화를 통한 하느님과의 친교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예수님께서서 머물러 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낮설고, 어색하고 등등의 이유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곧 거부감이나 거북함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감이 거부감이나 거북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마태 12,30-32)



신기훈(그레고리오) 신부
통해(해군 제1함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탈출 17,3-7
- 회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 2 독 시** 로마 5,1-2,5-8
- 복음 권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 복 음** 요한 4,5-42<또는 4,5-15.19나.39나.40-42>
-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진리를 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사 시작 예식 부분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도 우리 중의 대다수는 자비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마치 공동 죄고백을 할 때와 같은 처지와 감정에 사로잡혀 자비송이라는 제목이 주는 느낌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죄의 용서를 간청하는 청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청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자비송은 죄고백과는 달리 아버지이신 성부께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한 외침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하는 환호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비송 환호가 예리고 근처에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 눈먼 바르티매오의 외침과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다.(마르 10,45-52) 바르티매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기 옆을 지나가시는 분이 나자렛 예수라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바로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데 대한 놀라움과 함께 환호를 올립니다.

자비송의 첫 마디 “키리에(주님이시여)”는 우선적으로 우리 미사 집회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고백이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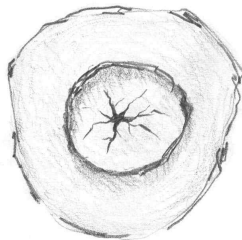
대한 공동체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키리에” 환성으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키리오스(주님)” 라는 용어는 본래 동방과 로마 문화권에서 시행되던 제왕 숭배 사상에서 유래되었고 왕인 황제를 경배하던 종교적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미 고대 이교문화시대에 이 호칭은 신들이나 숭배하는 통치자를 신(神)으로 찬송하는 환호이자 인사였습니다. 로마제국 시대에 황제가 어떤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황제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키리에 엘레이손!”하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 말은 “황제시여, 굽어 살피소서!”하는 의미를 가진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가 미사 안에서 왕 중의 왕(王中王)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환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인 초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신(神)인 황제에게 분향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키리오스(주님)은 그 당시 참된 신(神)이신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각된 신앙고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금간 사발

밀둥이가
금이 가
물이 줄 줄
세는
사발
이젠
화분으로
쓰면
그만 이겠습니다.

상화이야기

<시막 속의 프란치스코>, <오상을 받는 프란치스코>



<시막 속의 프란치스코 성인>

벨리니 (1430-1516)
1480년 作,
패널 위 유화, 124.6 X 142 cm
프릭 컬렉션 미술관, 미국 뉴욕

지난주에 이어서, 벨리니의 이 그림은 언뜻 보아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른쪽에 프란체스코가 묵상하던 공간에 주목해보자.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는 성인의 기도와 묵상 공간에는, 성경책과 해골(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고, 이 책상 아래에는 성인이 신던 신발이 있다. 성인은 무엇이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앞의 공간으로 나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성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부드럽게 성인을 비추고 있는 빛의 진원지로, 이는 그림 왼쪽 위에 하늘을 가르며 그에게 쏟아지고 있는 빛의 향연이다. 그리고 그가 빛을 통해서 받은 것은 성인의 손에서 보이는 오상이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벨리니아트)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3주일: 친미대 진상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3월 19일(주일)

- 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
때·곳: 3월 20일(월)-24일(금), CBCK

◆ 국장회의

때·곳: 3월 2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